

인도·남아시아팀

[인도·남아시아] 코로나19 관련 동향

2020.04.23.

1. 인도

1) 확산동향

□ 현지시각 4월 23일 오전 6시 기준, 확진자 수는 4월 16일 대비 약 1.7배 증가한 20,474명이며 사망자 수는 652명으로 집계¹⁾

- 확진자는 △마하라슈트라(5,221명) △델리(2,156명) △라자스탄(1,801명) △타밀나두(1,596명) △마디아프라데시(1,592명) 등이며 마하라슈트라, 델리, 라자스탄 3개 지역의 확진자는 인도 전체 확진자의 40% 이상을 차지

2) 경제적 영향

□ 2020년 3월 인도의 대세계 수출은 2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.6% 급감²⁾

- 인도 상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교역이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철광석을 제외한 모든 상품군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

- 2020년 3월 수입액은 31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(437억) 대비 약 28.7% 감소했으며, 보석류는 -53.5%, 기계류 -31.7% 증가세를 기록

□ 세계 주요 신용평가 기관과 인도 주요 은행은 2020/21년 인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

- 피치 레이팅스(Fitch Ratings)는 4월 23일 2020/21년 인도 경제성장률을 기존 4.9%에서 0.8%로 하향조정³⁾

- S&P는 2020/21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.5%에서 1.8%로 하향 조정⁴⁾

-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SBI는 2020/21년 경제성장률을 1.1%로 전망

3) 정부의 대응

□ 인도 중앙은행,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책 추가 발표⁵⁾

- 국가농업농촌개발은행(NABARD), 중소기업은행(SIDBI), 인도 주택은행

1) 인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hfw.gov.in/>)(검색일: 2020.4.23.)

2) <https://pib.gov.in/newsite/PrintRelease.aspx?relid=202278> (검색일: 2020.4.23.)

3) The Economic times (April 23), "Fitch Ratings sees India growth slipping to 0.8% in FY21" (검색일: 2020.4.23.)

4) Good Returns (April 18). "S&P Slashes India's Growth Forecast For FY21 To 1.8%" (검색일: 2020.4.23.)

5) <https://www.rbi.org.in/Scripts/NotificationUser.aspx?Id=11872&Mode=0>(검색일: 2020.4.23.)

- (NHB)을 대상으로 총 5,000억 루피(약 65억 달러)를 지원
- 지정 상업은행(Scheduled Commercial Banks)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)을 100%에서 80%로 하향조정
- 역 레포 금리(Reverse Repo Rate)를 4%에서 3.75%로 0.25%p 인하
- 인도 정부, 인도기업에 대한 기회주의적 투자(인수)를 예방하기 위해 FDI 정책 수정⁶⁾
 - 4월 18일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도기업의 가치가 하락, 이를 활용한 부적절한 인수 및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‘인도와 접경한 국가’가 인도기업에 투자할 경우 인도 정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수정
 -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정책 수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.
- 국가봉쇄령이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 결정된 가운데, 인도 내무부는 봉쇄 예외 사항을 추가한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⁷⁾
 - △농업 및 임업 활동 추가 △교육 관련 및 선풍기 판매상점 운영 △노령층 대상 자택 간병인 △항만 내 선원 이동 등을 허용

2. 남아시아

1) 확산동향

-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 지속
 - (파키스탄) 4월 2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0,513명, 사망자수는 224명을 기록⁸⁾
 - (방글라데시) 4월 22일 오후 3시 기준 확진자 3,772명, 사망자 120명으로 집계⁹⁾
 - (스리랑카) 현지시각 4월 22일 오전 10시 기준 310명의 확진자 발생¹⁰⁾
 - 4월 20일, 일일 확진자 수 최대치(33명) 기록
 - (네팔) 4월 18일~22일 동안 2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면서, 4월 22일 현재 총확진자 수는 45명(완치자 7명 포함)으로 증가하였음.¹¹⁾

6) <https://pib.gov.in/newsite/PrintRelease.aspx?relid=202359> (검색일: 2020.4.23.)

7) https://www.mha.gov.in/sites/default/files/MHAOrder_21042020.pdf (검색일: 2020.4.23.)

8) <http://covid.gov.pk/>. 4월 23일 오전 8시 39분 기준(현지시각).

9) http://overseas.mofa.go.kr/bd-ko/brd/m_2151/view.do?seq=1317590

10) Epidemiology Unit, 보건부 홈페이지(<http://www.epid.gov.lk/>)(검색일: 2020.4.23.)

11) WHO Covid-19 Dashboard: Nepal <https://covid19.who.int/region/searo/country/np> (검색일: 2020. 4. 23)
; The Kathmandu Post, Covid-19 Update <https://kathmandupost.com/covid19> (검색일: 2020. 4. 23)

- 지역별로는 특히 최근 우다야푸르(Udayapur)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.¹²⁾
- (아프가니스탄) 4월 23일 기준 확진자 총 1,176명, 사망자 40명이 발생하였으며, 3월 말 감염이 크게 확산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¹³⁾
 - 현재 아프간 곳곳에서 지역사회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주요 확산지역으로는 수도인 카불(Kabul), 헤라트(Herat), 칸다하르(Kandahar) 등임.¹⁴⁾
 - 한편 4월 21일 아프간 대통령궁 직원 20여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,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음.¹⁵⁾
- (부탄) 4월 23일 현재 확진자 7명(중동에서 귀국한 확진자 2명 추가, 국내 전염 사례는 없음)¹⁶⁾
- (몰디브) 4월 22일 기준 몰디브 확진자는 총 85명(자국민: 40명, 외국인: 45명)으로 지난주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됨에 따라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함.¹⁷⁾

2) 경제적 영향

- 남아시아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업 등 주요 산업 침체, 실업률 상승,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
 - (파키스탄) 파키스탄중앙은행은 2019/20년과 2020/21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-1.5%, 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¹⁸⁾
 - (방글라데시) 특이사항 없음.
 - (스리랑카) 특이사항 없음.
 - (네팔) 정확한 피해 규모 추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나, 관광분야 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업 분야의 손실이 400억 루피에 이를 것이며, 11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.¹⁹⁾

12) The Kathmandu Post, Covid-19 Update <https://kathmandupost.com/covid19> (검색일: 2020. 4. 23)

13) Johns Hopkins University. 2020. "John Hopkins Covid Tracker" <https://coronavirus.jhu.edu/map.html>

14) OCHA WHO. April 22, 2020. "Afghanistan: COVID-19 Multi-Sectoral Response Operational Situation Report 22 April 2020". <https://reliefweb.int/report/afghanistan/afghanistan-covid-19-multi-sectoral-response-operational-situation-report-22>

15) Indiatoday. April 19, 2020. "20 of Afghan president Ashraf Ghani's palace staff have coronavirus: Officials". <https://www.indiatoday.in/world/story/20-of-afghan-president-ashraf-ghani-s-palace-staff-have-coronavirus-officials-1668568-2020-04-19>

16) 부탄 Prime Minister's Office 페이스북. <https://www.facebook.com/PMOBhutan/> (검색일: 2020. 4. 23).

17) 몰디브 보건부 홈페이지, <https://covid19.health.gov.mv/> (검색일: 2020. 4. 23).

18) Reuters(2020.4.16). Pakistan central bank slashes growth outlook, cuts rates again.

19) The Himalayan Times, 'NTB survey to evaluate COVID-19 impact', <https://thehimalayantimes.com/business/ntb-survey-to-evaluate-covid-19-impact/> (검색일: 2020. 4. 22)

- (아프가니스탄) 현재 아프간 내 다수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져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중단된 가운데, 여러 지역에서 실업자 증가 및 생필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음.²⁰⁾
 - 4월 16일 기준, 헤라트(Herat) 주에서만 이미 35,000개 이상의 상점 및 공장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다수 실업자가 발생함.²¹⁾
- (부탄) 특이사항 없음.
- (몰디브) 특이사항 없음.

3) 정부의 대응

- 국가별 확산세에 따라 봉쇄령을 시행 및 연장하고 있으며, 필수품 확보 및 임금 지원, 방역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음.
 - (파키스탄) 파키스탄중앙은행은 4월 16일 기준금리를 2%p 인하한 9.0%로 조정했으며, 파키스탄 정부는 필수품 사재기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조례(COVID-19(Prevention of Hoarding) Ordinance, 2020)를 마련
 -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차원의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로 총 4.5%p 인하*
 - * 기준금리(변동일): 13.25% → 12.5%(3/17) → 11%(3/25) → 9%(4/16)
 - 차, 유제품, 계란, 밀 등 식음료와 의료용 장갑, 마스크 등 보건용품, 성냥, 농약 등 32개 필수품에 대한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, 압류 품의 50%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²²⁾
 - (방글라데시) 임시휴일 및 이동 제한을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
 - 해당 기간 동안 긴급서비스 관련 인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저녁 6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
 - (스리랑카) 4월 20일부로 실직자 대상으로 5,000루피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,²³⁾ 4월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2020년 총선을 6월 20일 시행하기로 결정²⁴⁾
 - (네팔) 최근 우다야푸르(Udayapur)의 사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

20) OCHA WHO. April 22, 2020. "Afghanistan: COVID-19 Multi-Sectoral Response Operational Situation Report 22 April 2020". <https://reliefweb.int/report/afghanistan/afghanistan-covid-19-multi-sectoral-response-operational-situation-report-22>

21) Tolonews. April 16, 2020. "Thousands Lose Jobs as Businesses Close in Herat". <https://tolonews.com/business/thousands-lose-jobs-businesses-close-herat>

22) DAWN(2020.4.17.). Ordinance to curb hoarding and artificial price hike of 32 items promulgated.

23) News.lk (April 23), "Rs 5000 payment for daily wage earners who lost their work due to Covid-19 to commerce from yesterday" (검색일: 2020.4.23.)

24) News.lk (April 20), "Election Commission has decided to conduct Parliamentary Election on 20th June 2020" (검색일: 2020.4.23.)

나면서, 네팔정부는 수도원 및 사원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테스트를 시작하였음.²⁵⁾

- **(아프가니스탄)** 아프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아프간 내 20개 이상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2~3주 단위로 봉쇄령을 연장하고 있으나, 방역 및 의료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.

– 아프간 정부는 방역 및 의료시스템의 한계, 확산지역 보급이 시급한 개인용 보호구(personal protective equipment)의 부족 등으로 방역 및 감염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²⁶⁾

- **(부탄)** 부탄 체링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 16일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부탄 12차 5개년 계획 내 인도 지원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 등을 의논함.²⁷⁾

– 부탄은 수입과 FDI에 있어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인도의 코로나 19 사태가 심화 될 경우,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,

- **(몰디브)**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(66명)가 발생한 말레(Male') 지역에는 공중보건위기 적색경보가 발효되었으며,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외출만 가능한 상태임.²⁸⁾

25) The Kathmandu Post, 'Detection of Covid-19 patients from mosques prompts government to start mass testing at religious sites with dozens of people in a single residential unit' <https://kathmandupost.com/national/2020/04/20/detection-of-covid-19-patients-from-mosques-prompts-government-to-start-mass-testing-at-religious-sites-with-dozens-of-people-in-a-single-residential-unit> (검색일: 2020. 4. 22)

26) OCHA WHO. April 22, 2020. "Afghanistan: COVID-19 Multi-Sectoral Response Operational Situation Report 22 April 2020". <https://reliefweb.int/report/afghanistan/afghanistan-covid-19-multi-sectoral-response-operational-situation-report-22>

27) Observer Research Foundation. Bhutan: Pandemic and Economic Resilience. <https://www.orfonline.org/research/bhutan-pandemic-and-economic-resilience-64872/>(검색일: 2020. 4. 2).

28) 몰디브 보건부 홈페이지, <https://covid19.health.gov.mv/>; <https://avas.mv/en/81675>(모든 자료의 검색일: 2020. 4. 22).